# “창립정신이 정체성…미래 초석 다지겠다”

## 연꽃마을 제4대 이사장 원상 스님



**창립자 각현 대종사 입적 후**
**후원자 수 감소 등 어려움도**
**부도탑 조성 등 정체성 확립**
**재정 구조 대대적 개편 이뤄**
**“힘 보태준 모든 분들에 감사”**

용인=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원상 스님<사진>이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9년 3월, 연꽃마을은 전환의 기로에 서 있었다. 창립자인 덕산당 각현 대종사 입적 후 5년간 누적된 어려움이 법인을 옭죄고 있었다. 꼬박 한달 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법인 현안과 재정을 들여다 봤지만, 타개책은 묘연했다. 쇠퇴의 기로에서 스님은 ‘수좌답게’ 결단했다. 현상을 제거한 근본자리를 직시했고 대대적인 혁신, 즉 정면승부를 선택했다. 스님이 꼽은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창립정신의 회복과 재정구조 혁신을 통한 내실 강화였다.

우선 창립정신의 회복을 위해 덕산당 각현 스님을 추모하고 조명하기 위한 불사를 시작했다. 불사는 오직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뤄졌다. 조계종 원로의원 미룡 월탄 대종사 등 문중 스님들을 비롯해 각현 스님과 인연이 있던 여러 스님들이 마음을 보탰다. 부도탑은 지난해 말 연꽃마을이 태동한 용인노인요양원 인근 부지에 조성됐으며, 부도탑 주변을 덕산공원으로 조성해 봉헌한다는 계획이다.



11월 19일 준공식이 예정된 연꽃마을 법인사옥.

원상 스님은 “현재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근본적으로 창립정신을 계승하지 않고서는 연꽃마을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부도탑은 은사스님을 기리는 동시에, 생전 드높았던 사회복지 원력과 창립정신, 도전의식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부도탑과 덕산공원은 앞으로 연꽃마을의 정체성과 구심점이 되어 연꽃마을의 미래를 열어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도탑과 함께 추진된 또 다른 불사는 법인 사옥건립이다. 부도탑이 연꽃마을의 정신적인 축이라면, 사옥건립은 구조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무엇보다 17년간 월 임대 형태로 운영됐던 법인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은 가장 큰 지출을 없애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

원상 스님은 “쉽지 않은 계획이었지만 힘을 보태준 문중과 이사회, 임원과 시설장 등 모든 구성원 덕분에 숙원과제이던 첫 사옥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특히 스님은 산하시설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님은 “연꽃마을의 자랑은 바로 사람이다. 내부승진을 통해 은사 스님과 함께 불교복지를 일궈온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도 법인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법인 사옥에는 사무국 공간과 각현 대종사 기념관, 교육관, 법당 ‘연화사’가 자리한다. 특히 연화사는 부도탑과 함께 연꽃마을을 상징하는 구심점이자, 내부 법당을 넘어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사찰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법인 이사장이자 연화사 주지 소임을 맡은 원상 스님은 올 동안거에 이 곳에서 100일 기도에 입재한다. 이를 통해 연꽃마을의 미래 30년을 위한 초석 마련을 화두삼아, 은사 스님의 원력과 그 삶의 여적을 찬찬히 돌아본다는 계획이다.

“은사 스님의 입적 당시 개인 통장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전부 베트남 연꽃마을로 송금했기 때문이죠. 한평생 연꽃마을을 위해, 또 불교사회복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스님의 그 원력이야말로 앞으로 연꽃마을 100년을 이끌어 갈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 국민 공공 치유 템플스테이 뜬다

### 불교문화사업단, 11월 30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로 지친 사회를 위로하는 ‘코로나19 극복 치유와 힐링 특별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해당 기간 중 전국 110개 사찰에서는 1박2일 템플스테이를 2만원에 즐길 수 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구호협력기구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가 10월 23일 서울 진관사에서 코로나19로 지친 공중보건 인력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공익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템플스테이 운영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그 가치도 함께 알려갈 예정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이 한국관광학회와 11월 16일 공동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의료와 관광, 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템플스테이의 공익 가치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이제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식방편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공익 성격의 템플스테이 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대행선 · 불교사상 접점 모색한다

### 대행선연구원, 11월 21일 제4회 학술대회 개최

### 법화 · 정토 등과의 연결 고찰
### 한마음선원 유튜브로 생중계

붓다는 맨발로 세상을 유행하며 대자유의 삶을 몸소 실천해 증명했고, 그의 가르침은 화엄 · 유식 · 법화 · 정토 · 밀교 · 선 등 여러 이름으로 집약돼 전해졌다. ‘나는 누구인가’는 근본 의문 참구하다 자성발로한 대행 선사는 생활을 떠나 따로 불법을 구하지 말라 하였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라고 했다.

생활 속 불교사상과 대행 스님이 남긴 대자유의 삶을 참구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11월 21일 ‘불교사상과 대행선사상’을 주제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오전 10시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40분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의 사회로 2부 학술발표가 진행된다. 학술발표서는 이명북 고려대 교수가 ‘〈법화경〉에서 바라본 대행 선사상’을 발표하며 이기운 동국대 교수가 논평한다. 또 조준호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가 ‘정토사상의 본질과 대행 스님의 정토관’을 주제로 발표하며 문을식 동국대 교수가 논평한다.

학술대회는 점심공양 후 오후 1시에 3부 학술발표로 이어진다.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사회 아래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유식사상과 대행선 · 자성신과 한마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며 김성철 금강대 교수가 논평한다. 이어 정성준 위덕대 교수가 ‘대행선과 총지선의 성립배경 고찰 - 〈무외삼장선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김영덕 위덕대 교수가 논평에 나선다.

이어 최유진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조사선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행의 선사상’ 발표와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의 논평이 진행된다. 끝으로 권탄준 대행선연구원 원장의 ‘화엄사상과 대행선 사상’ 발표와 박보람 충북대 교수의 논평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는 김용표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체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는 토론광장이 열린다. 대행선연구원 측은 “코로나로 인한 대위기에 생활과 불법이 둘 아닌 도리가 절실하다”며 “대자유의 길을 고찰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행선연구원 제4회 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을 통해 생중계 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

###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11월 5일 정의당 대표, 수진사 방화 언급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지 말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범종과 목탁으로 행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진에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 국가인권위원 퇴휴 스님,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사노위는 이날 처음으로 모형 범종을 차량에 싣고 행진을 외호했으며,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행렬의 선두에서 목탁을 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몽 스님은 “불교에서 범종과 목탁은 모든 만물을 깨워 밝힌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종교를 초월해 범종과 목탁의 울림이 모든 차별과 소외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염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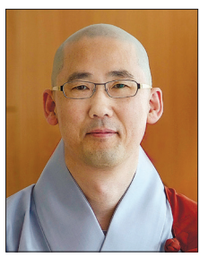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 퇴휴 스님은 “평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헌법에도 명시된 권리이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이토록 호소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며 “우리사회의 모든 차별과 증오, 혐오가 사라지는 계기로서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현실화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11월 5일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행진.

송지희 기자

## 제17회 대원상 대상에 일묵스님 · 거룩한 만남



대한불교진흥원은 11월 4일 제17회 대원상 수상자로 출가부문 대상에 조계종 제따와나선원장 일묵 스님<사진>을, 재가부문 대상에 BBS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묵 스님은 2009년부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현대적 방법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원을 열어 불자들의 수행지도에 매진해 왔다. 특히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 수행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재가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BBS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은 1991년부터 이어진 이웃돕기 모금 프로그램으로 동체대비 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대원상은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고(故)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모범적으로 정진해온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준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2천만원, 특별상 1천만원, 장려상은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템플스테이 TEMPLESTAY
BTN 유튜브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템플스테이
Templestay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연구 세미나 온라인
2020.11.16 |월| 2시
방송 BTN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BTNWORLD)
주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관 한국관광학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발제 1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 : 성과와 과제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전병길 교수
발제 2 템플스테이의 경제적 가치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관광학과 이충기 교수
발제 3 템플스테이의 심신치유 가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
토론자 국립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원섭 교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이원석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 오상훈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